



인쇄혁명 PDF 프린팅 CMS 워크숍

“미래 인쇄환경의 핵심은 CMS”

(주)에즈랜드(대표이사 최현수)가 주최하고 동국대학교 RIS 사업단이 주관한 '인쇄혁명 PDF 프린팅 CMS 워크숍'이 지난 해 11월 26일 서울 중구 PJ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워크숍은 컬러 인쇄물의 새로운 장을 열어줄 CMS(Color Management System)가 인쇄업의 블루칩으로 급상승하면서 출력, 인쇄, 출판, 인쇄물류업 등이 밀집해 있는 중구지역과 연계하여 열려 큰 관심을 모았다. 인쇄혁명 PDF 프린팅 CMS 워크숍은 (주)에즈랜드가 동국대와 협조하여 지역연고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인쇄문화 발전을 위해 특별히 기획한 것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정동일 중구청장, 중구의회 심상문 의장, 서울시의회 최병환 의원 등 지역내빈을 비롯해 이기웅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이의수 동국대RIS사업단 단장 등과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수 에즈랜드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극심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쇄 출판 산업분야부터 끝없는 원가절감과 필사적인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CM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율성과 편리함은 인쇄산업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와 고품질의 인쇄물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서 정동일 중구 구청장은 “우리나라 인쇄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인쇄의 디지털화’가 급선무다. 사용자의 사용 환경 및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원소스 멀티 프린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쇄업의 블루오션을 발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혁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본지 유창준 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현수 에즈랜드 대표이사가 ‘에즈랜드 PCM 적용사례’에 대해, 박영주 하이텔베르그 팀장이 ‘Print Color Management (PCM)’에 대해, 라종담 마이크로큐닉스 팀장이 ‘Color Communication Solution For Printing Industry’에 대해, 명노삼 GMG 대표이사가 ‘Color management와 표준화’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명노삼 GMG 대표이사과 라종담 마이크로큐닉스 팀장은 에이전시와 의뢰인 그리고 인쇄사에서 조정되는 입력 데이터의 컬러와 내용의 교정 승인을 위한 디지털 교정 시스템을 비롯하여 인쇄 분야에서의 CMS개념과 실제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CMS소개 이후에는 인쇄현장 중심으로 국내외 대표적인 실제 PDF 인쇄 표준화 사례를 다수 소개했다. 특히 에즈랜드는 자사 사례를 통해 인터넷과 결합한 최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출력, 인쇄, 후가공, 납품 완료와 사후 관리까지 PDF와 JDF를 도입한 후 실제로 적용, 연구, 체득한 경험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식전행사로 임방울국악제 대상 수상자인 명창 김미나 선생의 초청공연(춘향가 중 오리정이별대목, 사철가)이 진행되어 박수 갈채를 받았다. ☞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

